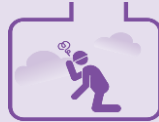




질식 사망사고 발생경보  
제2025-6호

## 차집관로 맨홀 내 질식(추정)사고 (사망 1명, 부상 1명)

'25.7.6.(일) 9:22경 인천 계양구 소재 차집관로에서 관로 크기를 측량하던 수급업체  
작업자 1명이 질식(추정)으로 떨어져 실종 후 사망으로 확인 되었고, 구조하러 들어간  
수급업체 사업주 1명도 질식(추정)으로 쓰러진 재해(작업자 1명 사망, 사업주 1명 부상)



### [ 사고발생 과정 및 원인 ]

① 작업자 1명이 관로 크기를 측량하기 위해 차집관로 맨홀 아래 약 5m 깊이를 내려감



② 관로 크기를 측량하던 중 질식(추정)으로 맨홀 아래로 떨어짐\*  
\*다음 날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 관로에서 사망한채 발견



③ 이를 인지한 사업주가 재해자를 구조하기위해 내부로 들어가 구조를 시도하는 도중 질식(추정)으로 쓰러졌으며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인 재해

### [ 질식위험장소 작업 시 조치사항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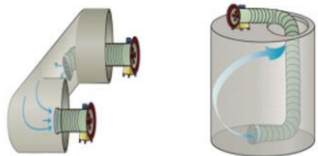
#### 필수 안전작업 수칙

- ① 질식위험장소 내부로 들어갈 때에는 산소 및 유해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수준 확인 후 진입
- ② 작업 전, 작업 중 환기팬으로 지속 환기 실시

1 송풍기에 자바라를 붙여서 입구에서 1m 이상 밀어 넣고 (가급적 작업 위치까지 밀어 넣는 것이 효과적임)



2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, 15분 이상 공기를 불어 넣고 (단, 환기시간은 질식위험공간의 체적, 구조, 유해 가스 발생량, 환기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

3 작업자가 들어간 후, 계속 송풍기를 틀어 놓을 것! (단, 유해가스 발생량에 따라 필요 송풍기 대수가 증가될 수 있음)

※ 양면이 개방된 배관, 탱크와 같은 밀폐공간은 이렇게 환기하세요.

- ③ 외부에서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
- ④ 질식위험장소 내부 작업 중에는 가스농도측정기를 휴대하여 유해가스 농도 지속 측정
- ⑤ 재해자 구조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반드시 착용

#### 질식재해예방 One-Call 서비스 제공

- ▶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해
  - ① 장비대여 및 사용방법교육, ② 측정자 양성 교육, ③ 기술지도(밀폐공간 발굴 등) 서비스를 무상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전화로 신청바랍니다.

☎1644-8595

### ■ 사고현장



<맨홀 내부>



<재해현장 전경>

### [ 최근 맨홀 내부 질식사고 사례 ]

- ('23.7.) 전남 화순 정수장 맨홀 내부 보수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(1명 사망, 2명 부상)
- ('24.6.) 서울 강서구 맨홀 내부에서 하수도 준설작업 중 황화수소에 중독(1명 사망)
- ('25.4.)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맨홀 내부에서 정화조 준설작업 중 황화수소에 중독(1명 사망)
- ('25.5.) 경기 화성시 소재 오수관로 맨홀 고압살수 후 내부에서 확인작업 중 황화수소에 중독(1명 사망)

**우리 사업장의 질식사망위험 장소를 먼저 찾고 내부로 들어가거나 작업 시 반드시 필수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여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**